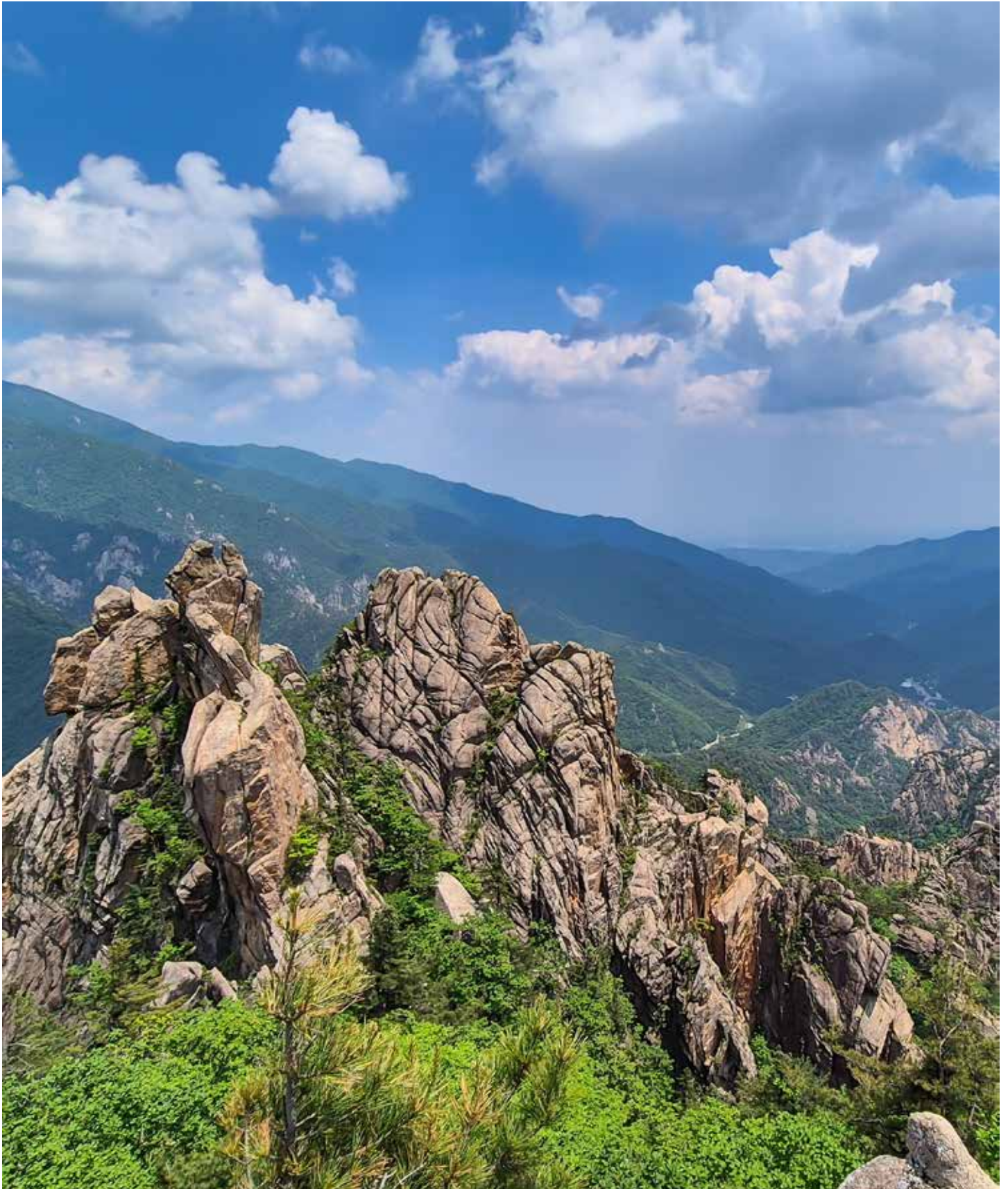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2025
7

vol.362

양양소식



2025년 6월 22일 흘림골 등산대

개

이 명

주인은 나를 차에 태우고 먼 길을 와
산기슭에 두고 갔다

몇 번을 짓으며 쫓아갔지만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다

나는 주인을 알고 있다
주인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더 크게
무위자연이 되라는
주인의 마음이 읽히기 때문이다

산은 높았고 나는 산을 지키기로 했다



이명 시인

약력

2011년 <<불교신문>> 신춘문예 당선

시집 : 『분천동 본가입납』, 『벌레문법』, 『벽암과 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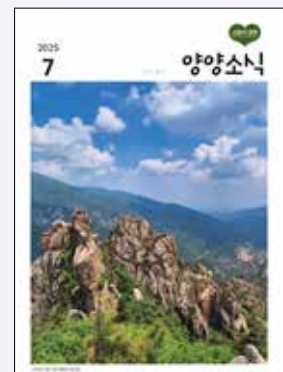
『기사문을 아시는지』, 『산중의 달』 등

목포문학상 수상, 계간지 『문학의 창』 발행인, <시터> 동인

양양군 현북면 거주



<양양소식 362호>



발 행 일 2025년 7월 1일

발 행 처 양양군청

편 집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제작기획 홍보팀

♥ 홈페이지와 SNS에서
다양한 양양소식을 만나보세요!

www.yangyang.go.kr

likeyangyang

blog.naver.com/likeyyang

@likeyangyang_official

yangyanggun_official

1 희망 양양

04 살기 좋은 양양

· 양양에 오래오래 살어리랏다, 로마드협동조합

08 함께 가는 길

· 웃는 양양을 만들어요, 웃장양양

12 양양은 지금

· 영웅의 마지막 길, 우리가 함께합니다.

2 의기 양양

16 의회소식

·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운영
·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군정 질문

18 향토사 이야기

· 해수관음보살의 본래 명칭과 역할은?

20 양양뉴스

· 양양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본격 추진
· ‘서프 시티 양양을 즐기다’ 프로그램 운영
·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 ‘달리는 국민신문고’로 군민 고충 해소
· 저소득층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시행
·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 양양군치매안심센터, 돌봄 시로봇 ‘효돌’도입 성과
· 양양 남대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실시
· 상수도 계량기 자동 원격검침 확대

3 열린 양양

23 문화마당 정보꾸러미

· 양양 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일자리 정보
· 2025 하반기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 강원특별법 활용! 함께 만드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
· 전세보증 지원사업(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전기 굴착기, 수소지게차를 구매할 때 관할 지자체로 문의해 지원받으세요.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26 정이 넘치는 양양

· 예쁜 아기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나눔의 기쁨(성금·물품 후원)

27 공익광고

· 폭염 대비 이렇게 행동하세요!
· 전국 최저 초미세먼지, 양양

양양에 오래오래 살ერი랏다 로마드협동조합

7월에 접어들면서 여름휴가를 떠날 생각에 마음이 한껏 들뜬다. 양양군도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해에는 80만여 명의 피서객들이 양양지역 해수욕장을 찾아오면서 국내 대표 여름관광지임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다. 관광·휴양·업무 등으로 양양을 방문하는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수요는 주민등록 인구의 수요를 훌쩍 뛰어넘었다고 한다. 서핑 성지로 알려진 현남면에는 파도타기와 독특한 해변 문화를 즐기기 위해 찾아왔다가 양양의 매력에 푹 빠져 장시간 체류하거나 아예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로 그들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생활인구의 지속가능한 양양살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현남면을 생활인구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로마드협동조합이 결성된 배경이다.

로마드협동조합 (좌로부터 장래홍 이사장, 편소희 매니저, 이홍래 팀장)





로컬과 노마드의 경계를 잇다

로마드는 현지인을 뜻하는 로컬(local)과 유목민을 뜻하는 노마드(Nomade)를 결합한 이름으로, 양양에서 오랜 세월 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정주민과 외지에서 온 이주민 또는 여행자들을 연결하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담고 있는 새로운 단어이기도 하다.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로마드협동조합은 **‘생활인구 거점 마을 만들기, 살기 좋은 현남면!’**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살아보기 체험프로그램, 생활인구 정착을 위한 커뮤니티 조직, 지역민 상생을 위한 마을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12월에 개최한 ‘제1회 잘했다 나녀석전’은 이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현남면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30명의 생활인구가 만든 ‘스스로를 칭찬하는 상장’ 등을 전시했다. 이듬해에는 19명의 현남면 이장들을 초청해 서로의 노력을 칭찬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제2회 잘했다 나녀석전’**을 이어갔다. 이처럼 로마드협동조합은 양양에서 살아가는 일상을 새로이 보게 만



제2회 잘했다 나녀석전 현장

들고, 현남면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로마드협동조합은 일종의 가교가 되기를 자처한다. 정주민과 이주민을 연결하고, 7번 국도를 중심으로 나뉜 전통상권과 여행지상권을 연결하고, 도시와 농어촌을 연결한다. 연결을 통한 시너지로 잠잠했던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2024 현남면 활성화 방안 초청 세미나



마을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다

현남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삶과 여행 사이 그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 양양이 좋아서 정착하고 싶어도 주거와 일자리, 자녀의 교육 등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남느냐, 떠나느냐'의 갈림길에서 수없이 고민한다. 로마드협동조합은 현남면의 생활인구들이 당면한 고민과 문제를 함께 해소하고 마을의 미래를 함께 모색해 보고자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해 왔다.

작년 11월에는 주민과 대학(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지역디자인경영 전공 에어리어 디자인경영 랩) 간의 협력을 통해 현남면의 매력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현남면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현남면을 돌아보며 지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양양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과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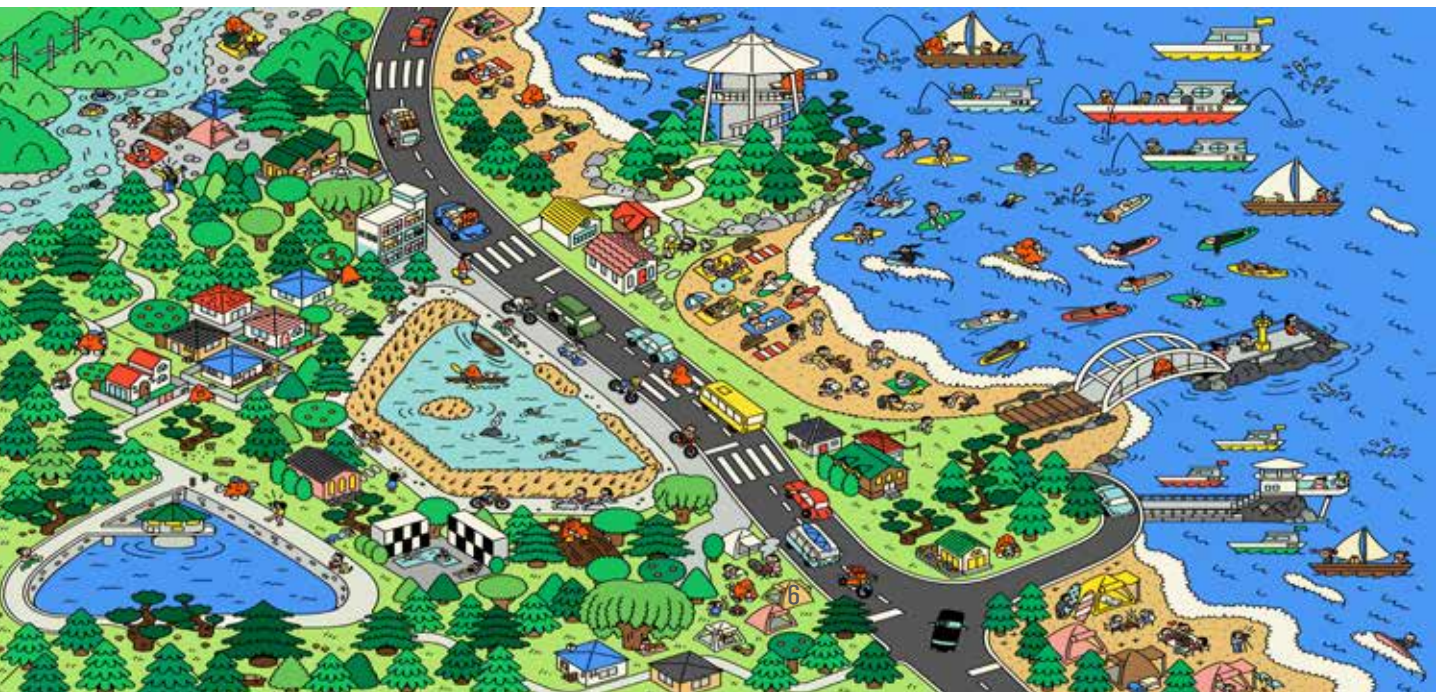
지난 5월 27일에는 오랜 세월 동안 지역에서 살아온 선주민, 최근 이주한 가족, 여행자로 찾아왔다가 정착하게 된 청년층 등 다양한 지역 구성원이 양양살이에 대한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현남 고민 수집소**'를 진행했다. 불편한 교통 인프라,



현남 고민 수집소

라, 부족한 편의시설, 각양각색의 민원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단순히 고충을 토로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혼자만 품고 있던 문제들을 꺼내 봄으로써 공감과 이해의 시간을 갖고,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개인의 문제가 모두의 문제가 된다. 로마드협동조합은 다양한 마을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든든히 서포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남면을 표현한 일러스트



드라마틱한 일상이 기다리는 현남면으로 오세요!



바들바들 현남생활 서핑 체험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의 삶을 누구나 꿈꿔봤을 것이다. 현남면은 서핑 성지로 떠오르면서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주를 고려하는 청년들도 많아졌다. 로마드협동조합은 청년 생활인구의 지역 정착과 교류를 위해 지역 상생 체류형 프로그램인 **‘바들바들 현남생활’**을 기획, 운영 중이다.

1기 참가자 모집에 앞서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2025 올댓트래블(All That Travel)’ 여행 박람회에 참가해 체험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며 현남면을 중심으로 한 양양의 매력을 알렸다. 홍보 덕분인지 20명 정원의 1기 참가자 모집에 180여 명이 신청하며 호응을 얻었다.

‘바들바들 현남생활’ 1기 참가자들은 6월 9일부터 바다와 산, 호수가 어우러진 현남면 일대에서 4박 5일간 머무르며 요가, 서핑, 그림, 핸드드립 체험



등 양양의 로컬 라이프를 몸소 체험하면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환기할 수 있는 시간과 양양살이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로마드협동조합은 이를 양양살이에 대한 실질적인 니즈와 피드백을 파악하는 기회로 삼고 향후 프로그램에 반영해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체험프로그램에는 단순한 이동이 아닌 **‘삶의 전환점으로서의 여행’**을 통해 양양의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도시와 농어촌을 잇는 여행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로마드협동조합의 포부가 담겨있다.

앞으로 로마드협동조합은 생활인구가 양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살아보기 체험부터 일자리, 창업, 주거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동조합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미지 제공 로마드협동조합

바들바들 현남생활 지역 투어





웃는 양양을 만들어요. 웃짱양양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하는 신체적 건강은 물론 우울증 예방, 불안 해소, 스트레스 완화 등 정신 건강을 개선한다. 이미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웃음의 효능이다. 이처럼 만병통치약인 웃음을 양양 곳곳에 전파하는 이들이 있다. 웃음을 통해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는 지역 동아리 단체 ‘웃짱양양’이다. 웃음으로 희망과 온기를 전하며 웃는 양양을 만들어가고 있는 ‘웃짱양양’을 만나보자.

웃고 싶어서 시작해, 이젠 웃음 전파사로

웃짱양양은 지난 3월부터 양양 지역에서 매달 2~3차례 웃음 치료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웃는 게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웃는 마인드가 최고다!’라는 의미에서 ‘웃짱’, 여기에 ‘양양’을 더해 ‘웃짱양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로 요양원 어르신들을 찾아가 즐거움과 웃음을 전달한다. 웃짱양양은 처음부터 봉사를 위해 만든 단체는 아니다. 지난해 양양군이 강원도립대학교와 함께 지역 특색에 맞는 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웃음지도 치료사 양성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한 수강생 10명이 뭉쳤다. 함께 교육을 받으며 수강 기간이 끝난 뒤에도 좀 더 의미 있는 만남을 만들기 위해서 재능기부를하기로 했다. 배운 걸 좋은 일에 봉사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지난 1월 학습동아리로 등록하고 함께 활동하고 있다.

웃짱양양 회원들은 40대에서 60대까지 연령대의 주부, 직장인, 자영업 등 하는 일도 다양하다. 회원들 대부분 웃음치료사가 되고 싶어서 교육을 수강한 건 아니다. 웃을 일이 없어서, 스스로 웃고 싶어서, 수업을 들으면 웃을 일이 생길까 싶어서 수강 신청한 회원들이 대부분이다. 신기하게도 수강을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서 매사 감사한 마음으로 변했다.

웃음은 긍정적인 마인드와 에너지를 주는 힘이 있다

한 회원은 예전에는 짜증이 많았는데, 웃음 치료 공부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하고 일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서 여유가 생기고 웃을 일도 생기게 됐다. 함께 공부한 수강생들은 이 교육에서 얻은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었다. 그렇게 10명의 수강생은 ‘웃짱양양’을 만들고 웃음 전파사로 나섰다.

웃음 치료 연습



웃을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드려요

웃을 수 있는
긍정의 마음 가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웃음치료사의 역할

웃음 치료 봉사활동을 준비하면서 문제는 10명의 회원 모두 남 앞에 나서 본 적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어려웠다. 2명씩 5조로 나눠 조별로 준비해 함께 모여 발표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사람들 앞에만 서면 준비한 것도 잊어버린 채 말도 못 하고 웃기만 하던 회원도 이젠 실력이 일취월장이다. 자신감이 생겨 나 홀로 자원봉사를 나가는 회원도 있다. 그렇게 웃음은 긍정적인 마인드와 에너지를 주는 힘이 있다.

웃음치료사로 자원봉사를 한다면, 개그맨처럼 실컷 웃게 해주는 게 아닐까? 남을 웃기는 일만큼 어려운 것도 없을 텐데, 어떻게 웃음을 줄까? 웃짱양양을 이끄는 문희영 대표는 웃음치료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준다.

“사람들은 ‘웃음치료사’라고 하면 개그맨처럼 웃긴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웃을 수 있는 마음가짐과 웃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즐겁게 해드려요. 요양원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건강 박수, 공 던지기 등 게임을 하면서 웃을 수 있도록 마음을 풀어드리죠.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어르신들의 얼굴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면 미소가 가득해져요.”

웃기는 이야기로 웃음을 주는 게 아니라 웃을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웃음치료사의 역할이다. 어쩌면 웃기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경로당보다 요양원에서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더 힘들다.

‘웃음지도 치료사 양성과정’ 교육을 담당했던 강사도 회원들에게 경로당부터 먼저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요양원을 다녀보니 이·미용 봉사 등 경로당 어르신들을 찾는 경우는 많지만, 요양원은 드물었다. 웃짱양양은 어려운 길을 택했다. 사람의 온기와 웃음을 더 필요로 하는 이들을 먼저 찾기로 했다.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다.

요양원 봉사



봉사하면서 받은 게 더 많아요

웃짱양양 10명의 회원은 다섯 달째 웃음치료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의 기적을 느낀다. 배운 걸 나누기 위해 시작했지만 회원들은 신기하게 더 많은 걸 받고 있다고 한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돌아갈 때쯤 어르신들이
꼭 잡아주는 손길에 오히려 제가 위로와 응원을 받아요.”
“또 오라고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을 느끼고
그 시간이 행복하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즐거웠다는 표현을 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회원들은 다음 봉사 시간이 더욱 기다려진다. 지금은 요양원 위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역 경로당은 물론 학업 스트레스로 힘든 아이들,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웃음치료 봉사활동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회원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는 스피치 교육도 시작했다. 더 나은 웃음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회원들은 오늘도 업그레이드 중이다.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해요

웃음이 좋다는 건 알지만,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매일 웃을 수 있을까? 웃짱양양 문희영 대표의 웃음 비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가장 좋은 웃음은 아기 같은 순수한 웃음이지만 억지로라도 하루에 1분만 웃어보세요.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해요. 웃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요. 웃을 일이 없어도, 그냥 웃어보세요. 하하하!!!”

웃짱양양의 봉사활동이 웃는 양양, 더 행복한 양양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미지 제공 웃짱양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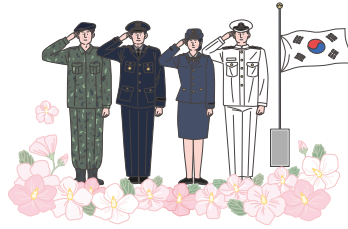
요양원 봉사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양양군지회

영웅의 마지막 길, 우리가 함께 합니다.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느껴지던 날, 양양군 보훈회관을 찾았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을 직접 뵙는다는 생각에 조심스레 사무실 문을 열자 단정한 정복 차림의 김주호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양양군지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지회장님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놓였다. 자연스레 시선이 정복 상의 왼쪽 가슴으로 향했다. 그곳에 달린 약장에 영예롭게 반짝이는 여러 개의 훈장이 그분의 지난 세월과 명예를 말없이 전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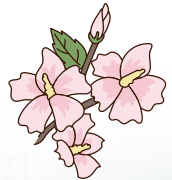
나라를 지킨 영웅들, 무공수훈자회

매일 아침이면 당연하듯 시작하는 일상은 너무도 익숙해서 때로는 그 소중함을 잊고 지내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이 평온한 하루를 지키고자 자신의安危를 뒤로 하고 나라를 지킨 이들이 있음을 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조국을 향한 뜨거운 충성과 용기로 무공훈장을 받은 이들, 양양군에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전투에서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을 받은 71명의 영웅들이 살고 있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서 무공훈장을 받았거나 군인 또는 경찰로 국가안보에 기여해 보국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구성된 국가보훈부의 법정 보훈단체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1985년 무공·보국수훈자 등록이 시작되며 설립되었고, 양양군지회는 1987년 창립되어 현재 무공·보국훈장 수훈자 71명과 유족 76명 등 147명이 함께하고 있다.



양양군지회는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보훈복지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총훈탑, 3.1만세공원, 경찰전적비 등 지역 현충시설을 정기적으로 참배하고, 전적지 견학과 합동 유해 발굴 개토식 및 영결식에도 적극 참여하며 호국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또한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모금, 경북 산불 피해 지원 성금 등 국내외 재난구호 활동에도 뜻을 함께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자체 후원회를 결성해 장학금과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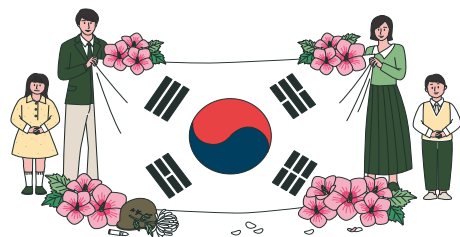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선양행사

지회 활동 가운데 가장 뜻깊은 일은 단연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선양사업이다. 대부분 고령인 무공수훈자들은 한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가신 후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없이 가족장으로 조용히 장례를 치러온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장례의전 선양사업을 시작했다.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과 그 공훈을 기리고, 유족에게 자긍심과 유훈을 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요 시책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선양사업을 채택한 후 전국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다. 2025년 4월 기준, 전국적으로 총 26,000여 회가 시행되었으며 양양군지회는 현재까지 54회의 장례의전을 주관하거나 지원해 유족들에게 큰 감동과 호응을 받고 있다.



국가유공자 사망 시 지회장과 사무국장이 직접 빈소를 방문하여 현충원 안장절차, 고인의 공적 및 선양행사 취지 등을 설명하고 유족의 동의를 얻어 장례의전 선양행사를 신속히 준비한다. 선양단은 마찬가지로 훈장을 받은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일과 주말, 시간을 가리지 않고 비상소집되어 마지막 길을 정중히 함께한다. 선양단원들은 일상생활을 잠시 뒤로 하고, 최우선으로 행사에 참여하며 인원이 부족할 경우 인근 지역과 협력하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직 선양행사에 대한 인식과 신청절차가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김주호 지회장은 “양양군지회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발굴에 노력하여 모든 유공자분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영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례의전행사와 관련하여 유족에게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진행되니 유공자 사망 시 강릉동부보훈지청이나 양양군지회에 꼭 연락하여 안내를 받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태극기가 함께 한 호국영웅의 마지막 길

지난 6월 어느 아침, 양양장례문화원에서는 한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길을 함께한 장례의전 선양행사가 열렸다. 고(故) 김OO옹은 6.25 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호국영웅이다.

이날 양양군지회 선양단 16명은 검은 양복에 훈장을 패용하고, 태극기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무공수훈자회 지부장의 근조기를 앞세우고 엄숙히 도열했다. 이들은 모두 무공 또는 보국훈장을 수훈한 선양단원들로 고인을 향해 거수경례를 올리고, 영구용 태극기로 관을 덮는 '관포식'을 정중하게 진행했다. 고인을 향한 진혼곡이 잔잔히 울려 퍼지는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단원들은 유족들과 함께 고인을 배웅했다. 유족 대표는 "국가유공자였던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중히 모셔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다."라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례의전행사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 명의로 국가유공자증서를 받은 본인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이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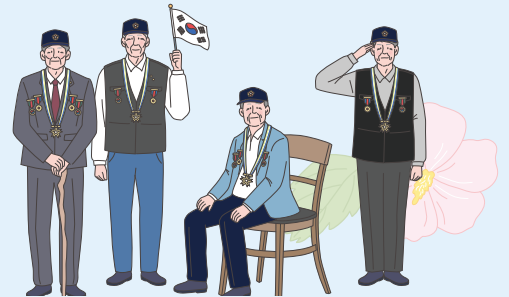
강릉동부보훈지청 033-610-0606 / 당직실 033-610-0640 / 010-8791-4010

장례의전 선양행사 상담 및 지원 안내

양양군지회 사무실 033-671-2009 (09시~18시)

사무국장 010-8908-2457 (24시간)

지회장 010-5266-7552 (24시간)



이미지 제공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양양군지회





■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운영」



-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운영
- 군정질문,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총 28건의 부의안건 처리

양양군의회(의장 이종석)는 6월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총 11일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군정질문 및 조례안을 포함한 총28건의 부의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6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의 조례를 심의·의결하였다. 대표적으로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체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고 1건의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다.

또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이어진 군정질문에서는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총 40개의 관내 주요 현안사업 현황 및 개선사항, 군민의 불편사항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종석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조례안 제·개정 및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 전반을 되짚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제2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9월 초 개의예정이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각종 부의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군정 질문

지난 6월 23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이 이어졌다. 군정질문은 군정 전반에 걸쳐 행해졌으며, 총 40건의 군정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실시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였다.



이명숙 부의장은 도시계획과에 관내 대중목욕탕 조성에 관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질문하였다. 지난 5월 양양군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남대천 기수역 조성사업 시행 시 대중목욕탕을 추가로 조성한다면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설계 변경을 통해 반드시 대중목욕탕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세만 의원은 양양과 울릉도 간 정기여객선 및 공항 운항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하였다. 해상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1년부터 추진해온 양양 수산항 ~ 울릉도 현포항 정기여객선 운항에 몇 년째 진척이 없어 사업 무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양양국제공항과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 간 운항 노선이 개설되면 관광객 유치를 통한 큰 규모의 경제 효과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하였다.



박봉균 의원은 양양경찰서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였다. 당초 2023년 준공 예정이었던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양양경찰서 건립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는데, 해당 사업이 농·축특산물의 판로를 개척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광수 의원은 지난 제286회 임시회에서 건의문으로 채택하였던 현남면 주거 안정 대책 촉구 건의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현재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인구증가를 위해서라도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고교연 의원은 대형산불 발생 시 양양군의 대처 방안에 대해 질의하였다. 최근 발생한 타 지역의 산불 피해 사례의 경우 대부분 인재에 의한 것이었으며, 점차 동시다발적이고 대형화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최선남 의원은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무산으로 집행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진 현 시점에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개통 이후 성과 유발을 위한 종합적인 교통 대책 및 이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질의하였다.

양양군의회 의원들은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군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통해 보다 섬세하게 군민들의 심경을 헤아리는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밝은 내일을 꿈꾸는 양양군의회 페이스북 (<http://facebook/yycouncil>)

실시간 IP방송 청취 및 방문 신청은 양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www.yangyangcouncil.go.kr>)

해수관음보살의 본래 명칭과 역할은?

오봉산(五峯山) 낙산사에서 역사에 비하여 널리 알려진 성보(聖寶)가 신선봉(神仙峯)에 조성된 해수관음상(海水觀音像)이다. 해수관음상은 50여 년 전인 1972년 불사를 시작하여 5년 만인 1977년 11월 6일(당시 주지 원철 스님) 완공하여 점안(點眼) 법회를 열었다. 전라북도 익산에서 양질의 화강암 700톤의 석재를 운반하여 대좌부터 한층 한층 쌓아 올리면서 불모(佛母) 장인들이 일일이 정으로 섬세하게 다듬어 높이 16m, 둘레 3.3m, 최대 너비 6m로 만들었다. 대좌 앞부분에는 2마리 용이 조각되어 있고, 양옆에는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四天王)을 조각하여 전체적으로 균형미가 돋보이는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해수관음보살은 대좌 위에 활짝 핀 연꽃을 살포시 즈려밟고 서서 감로수(甘露水) 병을 받쳐 들고 오른손은 가슴 높이에서 전법륜인(轉法輪印)을 짓고 중생들에게 설법하고 있다. 해수관음상은 바다에 계신 관음상이라 하여 바닷가에 있는 사찰이나 암자에 주로 세워져 있다. 그

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만4천 경전 어디에도 해수관음보살이라는 명호는 찾아볼 수 없다. 천수경(千手經)의 11관음 중에서 10번째 보살인 군다리(軍荼利)보살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해수관음보살이다.

‘군다리(軍荼利)’의 어원은 범어 군다리(Kundali)로 ‘병(瓶)’을 가리킨다. 군다리보살이 들고 있는 보배로운 병에 담긴 감로수는 마르는 법 없이 썩 없이 흘러나와 필요한 어디든 법수(法水)를 나누어 주어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고 자비를 베푸는 보살이다. 군다리보살은 인간의 마음속에 돌아다니는 마귀를 잡아 불성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한다. 중생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탐(貪: 욕심), 진(瞋: 성냄), 치(癡: 어리석음) 삼독심(三毒心)을 무찌르고, 선(禪)을 지키는 보살로 님의 모습을 한 신(神)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서울 조계사 대웅전 문에도 님이 새겨져 있는데 속히 깨달음을 얻으라는 뜻이다. 님은 누구



낙산사 군다리보살상(해수관음보살상)



서울 조계사 대웅전 문의 닭 조각상

보다 먼저 새벽을 맞이하고 정확한 시간에 울음을 터트려 인간에게 알려준다. 이런 까닭에 새들의 신으로 여겨졌다. 군다리보살이 깜빡존 사건이 있다. 어느 날인가 군다리보살은 수없이 쫓아내도 다시 밀고 들어오는 악마들을 불철주야 지키다가 아주 잠깐 졸았는데 그 순간에 들이닥친 악마들이 인간 마음을 벌써 혼란과 파멸상태로 몰아 인간이 모두 악마로 변해가고 있었다.

잠깐 졸았을 뿐인데 들이닥친 악마로 인해 본래 마음이 혼란해진 군다리보살이 악마의 변명이나 자초지종을 들을 여유도 없이 긴 칼로 악마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내리쳤다. 자신이 깜빡한 탓에 성미 급하게 마구 베다 보니 칼 맞은 이가 악마가 아닐 수도 있었다. 이처럼 ‘군다리보살’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일을 당하면 피하지 않는 성미 급한 보살로 자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군다리보살도 자비(慈悲)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으로 그의 목적은 악마를 다스려 중생을 구제하는데 있다.

군다리보살의 울음을 듣고 깨우친 선사도 있었다. 서산대사가 지리산에서 진리를 구하기

위하여 여러 암자를 구름처럼 돌아다녔으나 참나를 찾지 못하였다.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친구를 찾아 마을로 내려오다가 닭이 해를 치며 우는 소리를 듣고 순간적으로 깨우침이 일어났다. 그를 계기로 서산대사는 다음과 같은 오도송을 남겼다.

“머리는 희어져도 마음은 희어지지 않는다고/ 옛사람이 일찍이 말하였거늘/지금 닭 우는 소리를 듣고/장부의 할 일을 다 마쳤네//홀연히 본래 내 집에 돌아오니/모든 것이 다만 이것과 같다./팔만 사천 대장경도/원래 하나의 빈 종이로다!”

불교에서는 참나를 바로 알아보는 것을 깨달음이라 한다. 삼독(三毒)에 물들지 않고 불성에 자유자재하기 위해 해수관음보살로 표현된 군다리보살이 존재한다.

오도송(悟道頌) 서산대사

髮白非心白(발백비심백)/古人曾漏洩(고인증루설)/今聞一聲鷄(금문일성계)/丈夫能事畢(장부능사필)//忽得自家處(홀득자가처)/頭頭只此爾(두두지차이)/萬千金寶藏(만천금보장)/元是一空紙(원시일공지)



양양 뉴스 (YANGYANG NEWS)

양양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본격 추진 교육·체험·관광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탈바꿈



기존 목재문화체험장이 화재로 전소됨에 따라 양양군은 같은 자리인 양양읍 월리 일원(507-2)에 사업비 61억 5,600만 원을 들여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재조성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제안 공모를 통해 설계됐으며 지하 1층 ~ 지상 2층, 연면적 881㎡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교육과 체험, 휴식 기능을 두루 갖춘 공간으로 탄생할 예정이다.

* 1층에는 목공 체험실 '나무꾼 공방'을 중심으로 목공 준비실과 목재 보관실이 마련된다.
2층에는 유아를 위한 목공체험 공간인 '뚝딱 공방'과 편백·블록놀이를 즐길 수 있는 '숲속 놀이터', 휴게공간인 '숲속 옹달샘'과 무인카페가 들어선다.

특히, 아이들이 마치 숲속에 온 듯한 분위기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콘텐츠와 공간 연출에 세심한 배려가 담길 예정이다.

담당부서 : 도시안전국 산림복지과 산림휴양팀(033-670-2963)

'서프 시티 양양을 즐기다' 프로그램 운영 양양 바다를 배경으로 청소년들에게 실감 나는 체험 기회 제공

지역 청소년을 위한 해양문화 프로그램 '서프 시티 양양을 즐기다'를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2025 양양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돼 양양의 아름다운 해변을 배경으로 청소년들이 바다와 교감하며 도전 정신, 환경 의식,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프로그램은 △체험형으로 서핑(7월 중 5회 운영)과 업사이크 활동(7월 중 4회 운영)이, △기록형으로는 바다 사진작가(6월 진행 완료)와 바다 시그널 활동(환경문제 탐구 활동으로 8월 중 40명 참여 예정)이 마련돼 총 2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9월 중 양양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성과전 시회다. 전시회에서는 참가 학생들의 사진, 작품 등 결과물이 공개되며,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 해양교육의 가치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담당부서 : 관광경제국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033-670-2357)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국가유공자 및 유족, 8개 보훈단체, 기관단체장 등 300여 명 참석



현충일을 맞아 지난 6월 6일(금) 오전 10시, 현산공원 충훈탑 앞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하게 개최했다. 추념식은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자리로 국가유공자와 유족, 양양군 내 8개 보훈단체 회원, 102기갑여단장, 그리고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전국 동시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군민 모두가 함께 묵념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보훈단체장과 유족들의 헌화와 분향 △추념사 낭독 △추모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행사가 진행됐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3-670-2292)

양 양 뉴 스 (YANGYANG NEWS)

‘달리는 국민신문고’로 군민 고충 해소

지난 6월 11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이 직접 민원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사항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민원 상담 제도이다.

주요 상담 분야는 △복지 취약 계층 지원 △전통시장 개선 △건축·토지 △복지 △노동 △농업 등 행정 전 영역으로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별도의 예약 없이 당일 현장에서 신청해 상담을 받았다. 즉시 해결 가능한 사안이나 단순 문의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고, 장기적인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 및 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결하게 된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감사법무팀(033-670-2112)

저소득층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시행

양양군 포함 전국 16개 지자체 선정, 요실금 치료 및 의료가기 사용 지원, 담당하게 치료하세요!



양양군보건소는 ‘2024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요실금 증상으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인식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중 요실금 진단을 받은 주민이다. 이들에게는 검사비, 약제비, 수술비 등 요실금 관련 의료비를 연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한다. 의료비 신청은 요실금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양양군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양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은 누구나 양양군보건소 산부인과에서 진료·처방을 받아 요실금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보건소 내 설치된 요실금 의료가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담당부서 : 양양군보건소 진료지원팀(033-670-2520)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40명 모집, 7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마을 환경 정비 등 근무

취업 취약계층 등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월 ‘2025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신청받았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여성 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하반기 사업 기간은 7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고, 마을 가꾸기 및 지역 유희공간·시설 활용사업(환경 정비)에 38명, 항구 및 해변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2명으로 총 40명이 선정된다.

근무조건은 65세 미만인 경우 주 30시간, 65세 이상인 경우 주 15시간이며 시급은 10,030원으로, 간식비 4,000원과 주휴·월차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이후 군은 신청자의 재산 상황, 가구 소득, 동일 유형 일자리 참여 횟수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종합 심사하여 오는 7월 14일(월)까지 합격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담당부서 : 관광경제국 경제에너지과 경제일자리팀(033-670-2289)

양 양 뉴 스 (YANGYANG NEWS)

양양군치매안심센터, 돌봄 AI로봇 ‘효돌’ 도입 성과 치매 예방을 넘어 정서·생활·인지 건강까지



양양군치매안심센터는 인공지능(AI) 돌봄 로봇 ‘효돌’을 활용한 치매예방사업을 5년째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100여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해 지속적으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 ‘효돌’은 24시간 어르신 곁을 지키며 정서·생활·인지 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AI 돌봄 로봇으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맞춤형 건강관리 기능을 통해 복약, 식사, 운동 시간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며 대화를 통해 건강 습관을 유도하고, 건강 문진 기능도 제공함으로써 일상적인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AI 기반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로봇에 내장된 센서가 어르신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관리자가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해당 사업은 초기에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과 ‘우울척도가 높은 고위험군’으로 대상이 변경됐다. 효돌 돌봄서비스를 연중 운영 중이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약 10개월간 로봇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담당부서 : 양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3-670-2985)

양양 남대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실시



양양 남대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남대천 하구까지 포함한 하천·하구 쓰레기 집중 정화 활동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군은 장마철 집중호우와 여름철 피서객 증가로 남대천 하천변과 하구 일대에 다량의 쓰레기가 유입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인 쓰레기 수거 활동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5월 남대천 하천·하구 정화활동에 상시 투입될 인력 9명을 모집하였고,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정화 활동을 실시하며 남대천의 자연환경 보전에 힘을 계획이다.

담당부서 : 도시안전국 환경과 자원순환팀(033-670-2186)

상수도 계량기 자동 원격검침 확대

818대 단말기 추가 설치, 누수 예방·행정 효율 기대
상수도 검침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상수도 계량기 자동 원격검침 시스템’ 단말기 818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 ‘상수도 자동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사업’은 계량기 데이터를 원격으로 실시간 수집·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한 검침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말기가 추가로 설치되면 군은 총 5,458대의 원격검침 단말기를 운영하게 되며, 사업 대상인 11,639개 계량기 중 약 46.9% 구간에 스마트 검침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검침 사각지대 해소 ▲누수 및 이상징후 조기 발견 ▲요금 고지 관련 민원 감소 등 다양한 행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까지 4,640대의 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담당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033-670-2694)



양양 작은영화관 상영예정작(7월)



쥬라기 월드 : 새로운 시작

개봉 2025년 7월 2일



슈퍼맨

개봉 2025년 7월 9일



도라에몽 : 친구의 그림이야기

개봉 2025년 7월 16일



메간 2.0

개봉 2025년 7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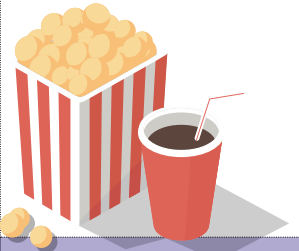
전지적 독자 시점

개봉 2025년 7월 23일



배드 가이즈 2

개봉 2025년 7월 30일



※ 개봉 날짜는 배급사와 영화관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양양 작은영화관 홈페이지(<https://yangyang.scinema.kr>)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일자리 정보

담당부서 : 관광경제국 경제에너지과 경제일자리팀(033-670-2289)

사업장명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주)에어플렉스	1명	항공 정비원(항공정비사 필수)	09:00~18:00 (주5일)	월230만원
유한회사 더사이트	2명	객실청소원	11:00~16:30 (주6일)	시급15,000원 ~18,000원
	1명	프론트사무원	09:00~18:00 (주5일)	월230만원
(주)취찬산업 낙산비치호텔	1명	객실청소원	09:00~18:00 (월6일 휴무)	월230만원
	1명	홀씨빙원	스케줄 근무	월220만원
할리스카페	1명	음료제조원	스케줄 근무	월220만원
(유)더스탠드온 하조베이	1명	음료제조원	09:00~19:00 (주5일)	월210만원이상 (협약)
효담노인복지센터	1명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1일5~6시간 (주5일)	시급18,000원 (수당포함)
참조은 재가노인복지센터	1명	요양보호사	08:00~17:00 (주5일)	월210만원
비지팅엔젤스	1명	방문 요양보호사	1일3시간 (주5일)	시급13,000원 (수당포함)
(주)기성현남레미콘	1명	레미콘 차량운전원	08:00~17:00 (주5일)	월230만원
(주)성심레미콘	1명	덤프트럭운전원(경력자)	09:00~18:00 (주6일)	월270만원
	1명	경리사무원	09:00~18:00 (주5일)	월210만원
(주)중앙비엠에스 (오션스테이 양양)	1명	시설기사	격일근무	월320만원
양양군민약국	1명	약국 전산자료입력원	평일9시~18시, 토: 9시~13시	월230만원

※ 채용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 2025년 하반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일정

대상	· 양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또는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2025년 기존 지원대상자(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연령 확대 ※ 기접종자는 지원불가 , 2026년부터 매년 65세 이상 순차적 지원						
기간	· 2025년 7월 ~ 12월 ※ 백신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내용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1회 지원 <table border="1"> <tr> <th>대 상</th><th>내 용</th></tr> <tr> <td>70세 이상 (1955. 12. 31. 이전 출생자)</td><td>백신비 지원(유료 접종), 본인부담금 : 19,610원</td></tr> <tr> <td>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975. 12. 31. 이전 출생자)</td><td>접종비 전액지원 (무료 접종)</td></tr> </table>	대 상	내 용	70세 이상 (1955. 12. 31. 이전 출생자)	백신비 지원(유료 접종), 본인부담금 : 19,610원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975. 12. 31. 이전 출생자)	접종비 전액지원 (무료 접종)
대 상	내 용						
70세 이상 (1955. 12. 31. 이전 출생자)	백신비 지원(유료 접종), 본인부담금 : 19,610원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975. 12. 31. 이전 출생자)	접종비 전액지원 (무료 접종)						
접종 장소	· 관내 위탁의료기관 5개소 ※ 상명대학교의원, 성모의원, 양양정형외과의원, 연세의원, 중앙외과의원						
접종 방법	①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 및 확인증 발급 ② 확인증 지참 후, 관내 의료기관 방문하여 예방접종						
문 의	· 양양군보건소 예방접종실 ☎ (033) 670-2540 / 2940 / 2887						



강원특별법 활용! 함께 만드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본격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4대 핵심규제 완화

산림	·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산지 규제 완화
농지	·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옛 절대농지 지정·변경·해제 권한 이양 (농식품부→도)
환경	· 환경 개발과 보전, 스스로 결정 - 환경영향평가 권한이양(환경부→도), 환경보전제도 신설
국방	· 접경지역 군방분야 규제 완화 -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현황 요청(도→국방부) - 접경지역 군사 규제 완화 직접 건의 등(도→국방부)

특화산업 및 교육자치

특화 산업	· 첨단산업 육성 기반 마련 -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 연구개발특구 지정 근거 마련 - 동해항자유무역지역 지정요건 완화
교육 자치	· 강원형 교육자치 기반 마련 -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 유아 교육에 관한 특례



전세보증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최대 40만원으로 상향)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 무주택자
*청년기본법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부부

• 제외대상

-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 2년 이내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경우 등

• 신청시기

연중상시(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내용

-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2025. 3. 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
(20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임차인	보증료
청년	최대 40만원
청년 외	보증료의 90% * 최대 40만원
신혼부부	최대 4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온라인신청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jeonse 정부24 www.gov.kr



• 신청서류

주민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

- 문 의 처 : 양양군청 도시안전국 도시계획과 주택팀
(☎033-670-2162)



**전기굴착기(배터리형, 케이블형),
수소지게차를 구매할 때
관할 지자체로 문의해 지원받으세요.**
※ 지자체별 지원 예산 및 물량 상이

• 무공해 건설기계란?

- 전기·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건설기계

•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이란?

- 전기굴착기(배터리형, 케이블형), 수소지게차 보급을 위해 신규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보조금 지원대상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구매하거나 신규 구매해 국내에 신규 등록·신고하는 경우

지원대상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구매 및 지원▶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건설기계)

• 중량, 성능 등에 따라 구매비 차등 지원

〈지원내용〉

구분	전기굴착기		수소지게차
	배터리형	케이블형	배터리형
지원 범위	총중량 6톤 미만 20톤 이상	총중량 20톤 이상	들어올림 중량이 1.5톤 이상 7톤 미만
지원 한도	2천만 원 (6톤 미만)	5천만 원	6천만 원 (1.5톤 이상 3톤 미만)
	2억 원 (20톤 이상)		1억 6천만 원 (3톤 이상 7톤 미만)



- 문의처 : 양양군청 관광경제국 경제에너지과 에너지팀
(☎033-670-2831)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사람 또는 법인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1장의 고지서에 함께 고지됩니다.

• 재산세 과세 기준

- 6월 1일자 기준 재산 소유자는 당해연도 중 소유권 변동 유무와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 의무를 부담

(예시) 과세연도 중 부동산 거래 발생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구분

-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 → 매수자
- 6월 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 → 매도자
※ 거래시점은 잔금지급일 등 취득의 시기를 의미함

• 부과대상 및 납기

구분	부과대상	납기
매년 7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7. 16. ~ 7. 31.
매년 9월	주택(2기분), 토지	9. 16. ~ 9. 30.

※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미만일 시 7월(1기분)에 전액 부과하며, 연세액이 20만원 이상일 시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1/2씩 나눠서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 은행 CD/ATM 및 공과금 수납기, 금융기관 납부
- ARS 카드수납(☎142211)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지방세 수납 시스템
- 가상계좌 납부 등을 통해 계좌 이체(고지서 우편발송)
- 지방세ARS(142211)를 통해 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군청 세무회계과 민원실에서 신용카드 납부

- 문의처 :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세무회계과 부과팀
(☎033-670-2149)

✓ **지방세**는 우리지역의 주민 복리와 공공 서비스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아기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곽 현 우 (남)

아빠 곽진영 ♥ 엄마 이선미
현우야, 밝고 건강하게 자라다오.
사랑해~ ♥



김 도 예 (여)

아빠 김철민 ♥ 엄마 팜티짱
사랑하는 우리 도예 공주!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주렴~ ♥



이 수 호 (남)

아빠 이성현 ♥ 엄마 김지영
엄마 아빠의 빛나는 보석 수호야!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

♥ 사랑스러운 아기의 탄생을 온 군민이 축하합니다 ♥

접수방법 임산부 등록 및 산후건강관리사업지원 신청 시

신청서류 아기 사진(선택), 신청서

문 의 양양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 033-670-2533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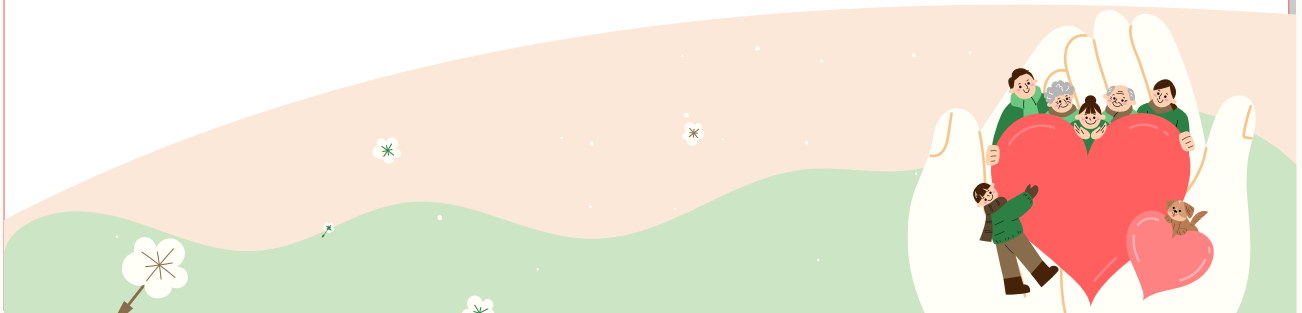
※ 축하 메시지는 전광판 / 소식지 /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 나눔의 기쁨 (성금·물품 후원, 2025. 5. 21. ~ 6. 18.)

🏠 (재)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장학 기금 기탁

- 강현농업협동조합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 솔그리메(대표 강환구)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 고엽제전우회 양양군지회 지회장 이강열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폭염 대비

이렇게 행동하세요!



폭염특보

33°C 폭염주의보
35°C 폭염경보

본격적인 무더위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

술이나 카페인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시기

가장 더운 오후 2시~오후 5시에는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되도록 하지 않기

온도차 5°C 내외

냉방기기 27°C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C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기

※ 적정 실내 냉방온도: 26~28°C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장소를 이용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기

숨 이 다르다 삶 이 다르다

전국 최저
초미세먼지, **양양**

1

위

초미세먼지 농도
전국최저

2024년 전국 153개 시·군 중, 양양군이 가장 낮은 초미세먼지 농도. 환경부 공식 통계